

## 2. 질 높은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 조선대병원·조선대치과병원

## “지역민과 함께 ‘생명지킴이’ 노력”

질환 중심 맞춤치료 선도  
효율적 진료시스템 운영  
‘사회적 책무’ 노력도 최선

1971년 전문 의료기관으로 그 시작을 알린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생명을 지키고자 최첨단 장비,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지역 최고의 사립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생명 존중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25개 진료과 828병상을 운영하며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암센터를 비롯한 14개 전문특성화센터는 첨단장비, 전문교수진, 질환 중심형 개인별 맞춤치료,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으로 각 분야의 중증질환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성폭행 피해아동의 건강관리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돕는 ‘광주해바라기센터’, △금연을 돕고 예방하는 ‘광주금연지원센터’, △고령화시대를 맞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 연구를 선도해가고 있는 ‘치매국책연구단’, △악성암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암악성화물연변이연구센터’ 등 다양한 국책사업과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촌 곳곳 세상의 아픈 곳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몽골, 캄보디아 등을 찾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지난 2014년 의료기관 인증 획득 등 국내 치과병원을 선도하는 최고의 브랜드가 됐다. 사진은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또한 호남권 최초로 인공지능 ‘IBM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연치료협력우수기관’ 선정,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해외긴급구호대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국비 298억원을 지원 받아 올해 설립을 추진해 2020년까지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구축되면 조선대병원은 원인불명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진단 치료 및 인력교육·훈련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대병원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료서비스 기관은

조선대치과병원이다.

1978년 10월 26일 설립돼 올해로 40년이 됐다. 2000년에 현재의 병원 건물을 신축해 최고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구축했고, 2005년에는 전국 최초로 치과병원 내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전자차트(EMR) 및 전산화단층영상촬영기(Cone Beam CT) 도입, 2014년 의료기관 인증 획득 등 조선대치과병원은 국내 치과병원을 선도하는 최고의 브랜드가 됐다.

또 전국 치과대학병원 최초로 병원 내에 의료관광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해외 의료진 교육 및 해외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의 의료 및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치과병원으로 발돋

움하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는 의료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민을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해 찾아가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 온 조선대병원과 치과병원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며, 앞으로도 신뢰하는 의료기관으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